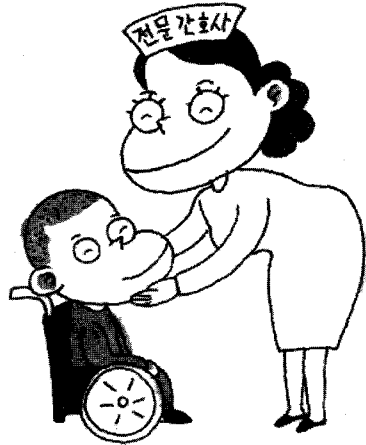


## 당뇨병 교육 전문간호사 제도의 확립을 생각한다

때는 바야흐로 전문시대이다. 우리 시대는 전문가의 홍수를 경험하고 있다. 전문간호사는 특정분야의 환자와 가족을 전문적으로 간호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는 간호사이다.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 분야에 오랜 임상경험과 일정한 학력, 자격시험을 거쳐야 한다. 전문간호사는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익숙하지 않으나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국민들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당뇨병 교육 전문간호사는 일반 간호사보다 당뇨병에 대한 지식을 더 오래 공부하고, 실무 경험이 많아야 하며, 임상연구도 활발히 수행하면서 당뇨병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에서 전문간호사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의료지출로 인한 국가의 재정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의료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전문 간호사가 개입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환자가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음의 예로 비교해보자.

농사를 짓던 김씨는 잦은 피로감과 갈증 그리고 소변양이 급격히 증가하



여 독립병원을 방문했다. 2시간여를 기다려 만난 의사로부터 다음에 공복에 와서 혈액검사를 해보라는 한마디를 듣고 김씨는 진료실에서 나왔다. 김씨는 한동안을 같은 증상으로 시달리며 기다린 끝에 드디어 검사하는 날, 시키는 대로 아침을 굶고 병원엘 갔다. 11시쯤 차례가 되어 피를 뽑았다. 늦은 아침을 먹고 2시간을 기다렸다가 또 한번 피를 뽑았다.

다음 진료 때 오면 검사결과가 바로 의사에게 갈 거라는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왔다. 며칠 후 다음 진료를 받기도 전에 김씨는 혼수상태가 되어 응급실로 실려왔다. 당뇨병성 혼수였다. 병원에 입원을 해서 처음 며칠은 주사로 무언가를 주입하고 아무 것도 먹지 못하게 하더니 의식이 돌아오고 나서는 매일 혈당을 측정하고 먹는 약도 복용하면서 김씨는 다 낫는가 보았다. 그런데 가장 괴로운 것은 이제는 멀쩡해

졌는데 식사를 너무 조금 주는 것이었다. 그 동안 농사일로 몸이 축나서 그렇다고 생각한 아내는 보신을 위해 좋은 음식을 구해다 놓는등 정성을 다 하고 있었다. 두 주일 후 외래에서 주치의는 경구혈당 강하제를 더 처방해 주고 2분만에 진료를 마쳤다. 운동을 해서 체중을 줄이고 식이요법을 병행하라는 간단한 지시와 함께, 김씨는 농사짓는 사람이 무슨 운동이 필요할까, 속웃음을 짓고 돌아왔다. 약이 떨어져도 아픈데도 없으니까 하고 그러저럭 지내다가 다음해 여름 김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발톱 밑 상처가 덧나 다리 절단 수술을 해야했다. 의료보험처리를 하고도 김씨가 내야했던 수술비와 입원비가 엄청난 부담이 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Karte 씨는 그의 나이 45세 되던 해에 심한 피로감을 느껴 동네에 있는 보건소를 찾아갔다. 간호사는 손끝에서 피를 내어 간단한 혈액검사를 하더니 혈당치가 높아서 더 자세한 검사를 해야한다고 설명해 주고는 이번에는 혈관에서 제법 많은 양의 혈액을 뽑아 검사실로 보냈다.

다음날, Karte씨는 보건소의 간호사가 보내주는 절하게 Karte씨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혈당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이므로 인슐린 주사가 필요하며 식이요법을 시작해야 한다고, Karte씨는 의사에게 다음에 언제 다시 올까 물었으나 의사는 자기에게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다시 올 필요가 없다며 Karte씨를 자기에게 보낸 간호사에게 다시 보냈다. 간호사는 Karte씨에게 당뇨병이 무엇인지, 왜 인슐린 주사와 식사, 운동요법이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주었다. 그날 Karte씨는 스스로 주사 놓는 법과 혈당검사 하는 법을 배웠다. 그 후에 아내와 함께 한 달 동안 주 2~3회 보건소를

방문하여 개별교육과 집단교육을 받고 부인과 함께 영양사에게 식이조절에 대한교육을 받았다. 유전적 소인과 식습관으로 인해 다른 가족이 당뇨병에 걸릴 위험성에 대한 상담도 받았다. 인슐린과 가끔 혈액검사, 안과적 검사를 하는 비용은 의료보험에서 지불이 되었고 Karte씨가 당뇨병을 조절하기 위해 직접 지불하는 비용은 거의 없다.

앞의 김씨는 자신의 질병에 대한 설명과 교육의 기회, 쉽고 빠르게 의료 서비스를 접할 수 없어서 다리를 절단하는 상태까지 간 일례이다.

반면에 Karte 씨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방법을 의사가 정해준 후 당뇨병 전문간호사로부터 당뇨병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고 스스로 자신의 질병을 잘 관리한 사례이다.

1980년대 무의촌이던 농, 어촌 지역에 상주하면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예방에 기여해온 보건진료원제도가 최근에는 수적으로 줄고 활동이 위축된 실정이다. 보건진료원 제도를 현실적으로 재정비하여 확대 실시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전문간호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한 상태이다. 보건진료원 제도를 비롯한 전문간호사 제도의 확립을 위해 일차적으로 이들의 역할과 신분보장을 위한 의료법개정과 공인된 자격 취득을 위한 제도 등 행정적인 장치가 확립되어야한다. 특히 당뇨병은 질병의 특성상 지속적인 조절과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전문의사에 의한 정확한 진단과 합병증의 예방이 매우 중요하며 의사의 처방이 잘 이행되도록 자가간호에 필요한 내용을 환자와 가족에게 교육하고 상담해주는 전문간호사의 활동이 필요한 영역이라 하겠다. 

안경애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